

# 실용무용에서 '코레오그래피'의 개념과 현재적 쟁점\*

유화정\*\*

I. 서론	IV. 결론
II. 실용무용에서 코레오그래피의 개념과 특성	참고문헌
III. 용어와 영역에 관한 현재적 쟁점	Abstrac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용예술에서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는 시대별 예술 사조와 문화 흐름에 따라 그 용례가 변화해왔다. 코레오그래피는 원, 춤, 합창을 의미하는 고대그리스어 코로스(Choros)에 기록을 의미하는 그라피아(Graphia)의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15~18세기 등장한 아르보(Arbeau)의 오키소그라피(Orchesography)와 보샹-뤼이에 무보법(Beauchamps-Feuillet notation) 표지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우주 공간에 그려지는 신체의 동선, 혹은 집단춤에 대한 기록으로서 코레오그래피를 인식하였다(Lepecki 저, 문지윤 역, 2014, p. 278). 20세기 모던댄스에서는 안무가 개인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연속된 동작으로 구체화하여 무용수의 몸에 전달하는 행위를 코레오그래피라 일컬었다(Susan Leigh Foster, 2009, pp. 98-100). 컨템포러리 댄스(Contemporary dance)라 명명되는 동시대 무용예술의 모체는 1960년대 등장한 포스트모던댄스(Post modern dance)이며 다원성, 탈경계, 융복합의 맥락에서 기존의 안무 구조를 해체하여 새로운 개념의 코레오그래피를 주창한다. 이에 개인의 내면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식에 집중했던 근대적 안무 개념으로부터 저항하여 춤이 발생하는 시공간, 무용수의 신체와 움직임 관계에 주목하는 실천을 코레오그래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무용예술사에 나타난 코레오그래피의 개념은 시대별 예술 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존재해왔으나 윗세대에 의해 구조화된 코레오그래피로부터 끊임없이 탈피하고자 하는 정치성을 가진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또 동시대 무용예술의 경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글로컬(Glocal) 컨템포러리 댄스로서의 개별적인 색채를 강조한다는 점 역시 두드러진다.

\* 본 논문은 2023년 한국무용예술학회 제28차 학술발표회(서울: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임

\*\*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hjyoo27@gmail.com

이러한 흐름에서 본 연구는 동시대 국내 무용예술이 취하는 코레오그래피에 문화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외부적 요소에 대해 주목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스트리트댄스(Street dance)와 케이팝댄스(K-pop dance) 중심의 실용무용이 독립적인 코레오그래피 개념을 생산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점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살핀다. 실용무용은 본질적으로 하위문화로서의 대중춤에 출발점을 두고 있으므로 무용예술사의 흐름에서 인식해온 코레오그래피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대신 브레이킹(Breaking), 락킹(Rocking), 팝핑(Poping), 왁킹(Waacking), 보깅(Voguing) 등 스트리트댄스의 세부 장르와 주변 장르를 융합하여 전략적으로 안무하는 행위를 코레오그래피라 명명하며 컨템포러리 댄스의 코레오그래피와는 다소 이질적인 개념과 문화를 생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는 동시대 무용예술이 시도하는 근대적 안무 개념의 전복 및 확장과는 관련 없으며 근대적 안무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의견이 있다(윤지현, 2023). 댄스 산업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고정된 안무의 생산과 소비 체계를 강화할 뿐, 안무의 발생 지점과 실천적 요소로 확장되는 동시대 코레오그래피 방향성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대 코레오그래피의 개념이 안무 구조의 결과적인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협업과 리서치를 통한 안무 과정 및 관련 문화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 역시 개념의 발생과 관련된 문화적 특수성, 안무의 과정, 재현 공간 등에 대해 확장된 시각으로 고찰하여 그 영향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가 케이팝댄스 산업 및 SNS 기반 숏폼 콘텐츠의 폭발적인 확산 흐름을 타고, 대중의 문화향유와 무용계의 예술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무용계 외부에서는 회자될 기회가 적었던 안무 관련 용어와 전문 안무가의 역할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흐름 중심에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 개념이 자리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순수예술로서의 공연 및 교육 활동에 주력해온 무용계에도 역동성과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채로운 움직임 소재의 발견 및 대중성 고찰에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무용, 특히 스트리트댄스의 주변에서 성장하는 코레오그래피의 개념을 정리하고 용어 사용의 혼동 및 기존 무용계와의 상호 영향을 둘러싼 현재적 쟁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은 실용무용에서 인식하는 코레오그래피, 특히 세부 분야이자 전공으로 정립된 ‘코레오(코레오그래피의 약어)’로 제한하지만 궁극적으로 동시대 무용과 실용무용 간의 관계적 입지를 고찰하고 제도화된 실용무용 내부에서 인식하는 코레오그래피의 의미와 활용 양상을 규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실용무용에서 인식하는 코레오그래피의 개념 고찰 및 쟁점의 발견을 위해 관련 문헌을 탐색하고, 심층인터뷰 중심의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비평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진행한 학술행사 ‘스트리트x스테이지 x미디어’에서 본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정 및 결과물을 활용한다.

인터뷰 참여자는 실용무용 관련 교육 및 퍼포먼스 현장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풍부하며 실용무용 뿐만 아니라 순수무용 현장과의 연계 활동에 관련된 전문가로 선정한다.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판단표집을 활용하여 연령별로 고른 분포의 참여자 6인을 최종 모집하였으며 각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인터뷰 관련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및 인터뷰 관련 사항

인터뷰 대상자	연령	학력	현직	인터뷰 일시	인터뷰장소
A	40대	박사	고등교육기관 실용무용 관련 전공 교수	2023.10.04. 12:30 2023.10.05. 13:30	광진구 연구실
B	30대	박사	고등교육기관 실용무용 관련 전공 교수	2023.02.10. 11:00	경기도 댄스 학원
C	30대	석사	고등교육기관 실용무용 관련 전공 교수	2023.10.11. 14:00	성동구 카페
D	20대	학사	코레오 댄서	2023.09.05. 11:00	종로구 모처
E	20대	학사	코레오 댄서	2023.09.05. 13:00	종로구 모처
F	20대	학사	코레오 댄서	2023.10.25. 14:00	용산구 카페

각 인터뷰는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 중심으로 상황에 적합한 질문을 가감하며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 후 구술 채록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실용무용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이바지하는 실용예술로서의 무용이자 대중층을 의미하며 그 하위요소로는 스트릿댄스, 코레오, 케이팝댄스, 재즈댄스, 발리댄스, 댄스스포츠, 탭댄스 등이 있다(김현문, 안창용, 이우재, 차윤미, 박소현, 2023, p. 38).

둘째, ‘코레오그래피’는 실용무용의 하위 춤들을 선택적으로 융합하여 개인의 스타일을 강조한 안무, 안무행위, 안무 관련 문화, 세부 전공 명칭으로 수용한다. 또 현재 실용무용 분야에서 ‘코레오그래피’를 ‘코레오’라는 약어로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도 ‘코레오그래피’와 ‘코레오’를 함께 사용한다.

## II. 실용무용에서 코레오그래피의 개념과 특성

### 1. 스트릿댄스의 프리스타일과 대비되는 계획된 안무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는 스트릿댄스 주변 다양한 춤으로부터 매력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전략적으로 안무하는 행위이자 결과물을 의미한다. 곡의 가사, 박자, 선율 등의 음악적 요소를 개인의 감정과 스타일에 따라 춤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고(이아로미, 2018, p. 34), 현재 실용무용 관련 교육 기관에서 안무에 주력하는 세부 전공 명칭이자 문화적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코레오그래피는 춤의 동작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안무 개념과 동일하지만, 실용무용 하위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릿댄스,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프리스타일 힙합의 본질이 즉흥성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전에 안무를 준비하는 코레오그래피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스트릿댄스는 브레이킹, 락킹, 팝핑, 왁킹, 프리스타일 힙합(Free style hip-hop), 크럼프(Crump), 하우스(House) 등의 하위 춤들을 포함하는 대중춤이다. 초기의 스트릿댄스는 1970년대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디스코와 펑크 음악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는 춤으로 왁킹, 팝핑, 락킹, 비보이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힙합 음악의 유행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춤 기술들을 자유롭게 섞어 추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프리스타일 힙합으로 굳어졌다(정지원, 2023, p. 4). 여타의 스트릿댄스와 마찬가지로 프리스타일 힙합댄스는 현장에서 춤을 보는 사람, 함께 춤을 추는 사람, 그 순간 들리는 음악, 호응하는 소리와의 교감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춤으로써 직관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중요시된다. 즉 다양한 기술의 학습은 물론 현장의 분위기를 알아채고 적절한 움직임 즉흥적으로 표출해내는 순발력이 요구된다. DJ가 즉흥적으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춤 실력을 겨루는 ‘배틀(Battle)’을 보면 각 댄서의 즉흥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댄서의 몸에 축적된 춤 동작들은 즉흥적으로 조직되어 댄서만의 특색과 강렬한 인상을 표현한다. 이에 배틀 중심의 스트릿댄스는 과시하고 조롱하는 의도의 과장된 움직임과 몸통 전체를 동시에 큰 범주로 움직이는 역동적 움직임이 주요 스타일로 굳어졌다. 이것은 춤을 위한 학습 환경 및 자본 위에서 준비된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는 주류 사회의 극장춤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요소이다.

반면 코레오그래피에 속하는 춤들은 춤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동작의 순서가 전략적으로 구성되며, 음악 역시 댄서 혹은 스태프에 의해 편집된 결과물로 사전에 제시된다. 따라서 코레오그래피에서 춤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안무뿐만 아니라 음악, 패션 등의 주변 요소를 전략적으로 구조화하는 연출력이 요구된다.

퍼포먼스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음악을 골라요.** 퍼포먼스 하는 곳의 분위기를 미리 생각하고 음악을 선택한 다음 안무를 하면서 음악을 편집해요. 그래서 음악 편집을 거의 전문가 급으로 하는 댄서들도 많이 있어요. (인터뷰 참여자 E)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 안무는 다 짜서 가는 것 같고 컨셉에 맞는 의상이랑 음악에 신경을 많이 써요...** 수업에서 쉐어할 때는 참여하는 분들이 뭘을 좋아할지 많이 고민하고 음악이랑 안무를 골라서 가요. (인터뷰 참여자 D).

코레오그래피와 대응되는 스트릿댄스의 하위 문화적 특징으로 춤이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들 수 있다. 스트릿댄스의 스트리트(Street)은 길거리를 특정 하는 용어가 아니고 실내 스튜디오나 무대와 같이 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비정형의 다양한 공간을 의미한다(김찬주, 2003, p. 298; 두원원, 김미현, 2020, p. 137에서 재인용). 이것은 스트릿댄스가 발생한 미국의 흑인 문화권뿐만 아니라 국내에 스트릿댄스가 전해지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특성이다. 당시 건물지하의 뮤직클럽, 나이트클럽, 공원, 지하철역사, 새벽의 에어로빅장 등에서 춤의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춤이 시작되는 시간 역시 각 장소의 본업이 종료된 심야 시간이었다(최용원, 유희정, 2023, p. 84).

반면 코레오그래피의 경우 스튜디오 및 무대에서 춤을 학습하고 공유하므로 즉흥적으로 구성되는 비정형의 공간과는 거리 멀다. 코레오그래피의 시작점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서부의 문화적 특성상 길거리

흑인 문화가 음악과 결부되어 활발히 양산되던 뉴욕과는 춤의 환경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1990년대 전후 LA에서는 스튜디오 중심의 연습 공간, 방송을 위한 안무의 길을 지향하는 분위기였으므로 즉흥적이고 거친 인상의 춤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된 춤을 선호했다. 또 카메라 앞에서, 혹은 관객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야 하는 가수들을 위해 몸통 전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줄이고 손과 발을 자잘하게 사용하는 제스처 위주의 동작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물론 동시대의 스트릿댄스는 흑인 문화의 초기 형태로부터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추어지는 춤으로 확장하면서 개별적인 문화 기억이 흐릿해진 상태이다. 따라서 안무 구조의 즉흥성이나 춤 장소의 비정형성이 다소 약해지기도 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스트릿댄스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파편화되거나 변질된 부분도 있다(Crystal S. Anderson, 2020, p. 39). 그러나 스트릿댄스, 특히 프리스타일 힙합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즉흥성을 존중하는 전문 댄서 및 교육자들은 스트릿댄스 교육이 제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학교나 스튜디오가 아닌 규정되지 않은 어딘가의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춤이 진짜 스트릿댄스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는 프리스타일 힙합 중심의 스트릿댄스와 대응하는 구도를 취하며 특히 구조화된 안무 스타일을 거부하는 전문 스트릿댄서들에게 코레오그래피 분야는 제 3의 새로운 춤으로서 배제된다.

한편 대부분의 코레오 전문가 및 전공자들이 스트릿댄스 관련 춤 유형을 두루 학습하여 안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스트릿댄스의 전문 댄서들이 코레오 관련 안무에 뛰어드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트릿댄스와 코레오그래피의 경계를 명확히 말하기란 쉽지 않다. 또 코레오그래피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스트릿댄스의 춤 스타일을 공유하고 댄서의 역량을 겨루는 현장으로서의 댄스컴페티션 및 비보이 경연대회에 코레오그래피 분야의 참여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 역시 스트릿댄스와 코레오그래피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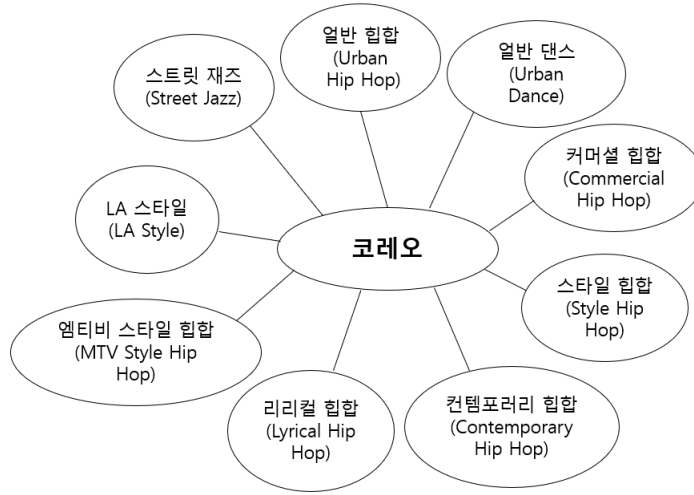
## 2. 케이팝 산업과 연계된 방송용 안무

2002년 발표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의 「Like I Love You」의 뮤직비디오 속 안무는 정통 힙합의 포인트 요소만을 살린 이른바 전유된 힙합이었다. 이러한 춤 스타일이 전 세계로 확장되며 얼반댄스(Urban dance)<sup>1)</sup>, 스타일힙합(Style hip-hop), LA스타일(LA style), 스트릿재즈(Street jazz)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국내의 경우 기술과 표현 면에서 댄서의 전문성을 보다 높은 안무 분야로서 코레오그래피의 발생과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 저스틴 팀버레이크 안무가 너무 히트를 쳤거든요. 신박한데 힙합스러운 요소가 많으니 **까 어떤 사람들은 스트릿재즈라 부르고 LA스타일이다, MTV스타일이다, 또 일본에서는 스타일 힙합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앞에 자꾸 스타일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이 진짜 힙합은 아니라는 말이니까 ... LA에는 방송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스트릿댄서가 되려

1) 1915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남부의 흑인이 동북부와 서부의 도시로 대이동하였으며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백인이 도시를 떠나 근교 지역(Suburban)으로 이주했다. 이때부터 얼반(Urban)은 빈곤층 흑인 중심으로 계도화 되었으며 당시 발생한 힙합 댄스의 스타일을 추출하여 전유한 춤을 얼반댄스(Urban Dance)라 불렀다. 2020년,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얼반(Urban)이 흑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점차 코레오그래피로 대체되었다.

면 그 문화를 익혀야 되는데 그 문화적 환경이 조성이 안되잖아요. 방송댄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섞어서 하게 된거예요. (연구참여자 A)



〈그림 1〉 ‘코레오’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

열반댄스가 LA의 방송산업과 연계되어 카메라에 담아내기 적합한 안무 구조, 보다 많은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로 발달한 것처럼 한국의 케이팝댄스 역시 스트리트댄스의 춤 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대중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확장한다. 케이팝의 본격적인 시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대중가요를 향유하기 시작한 해외 팬들이 증가한 지점으로 본다. 당시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팬덤 현상이 나타났으나 2010년대를 지나며 점차 유럽, 남미, 북미 등 세계 전역으로 케이팝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현재는 국가 브랜드로서 격상하였다. 케이팝에 대한 해외 팬덤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990년대 역시 힙합, 알앤비(R&B), 발라드(Ballad), 록(Rock), 일렉트로닉(Electronic) 등 다양한 계열의 음악과 그에 맞는 춤이 대중음악계에 나타났으며 특히 댄스의 역할을 부각 시킨 아이돌 그룹의 활동이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음악과 춤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프리스타일 힙합 문화에서 흥행한 요소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었다. 또한 춤 문화의 관점에서 가수의 춤과 외모를 모방하는 커버댄스(Cover dance)가 큰 인기를 끌어 행사장의 가설무대, 방송댄스 학원의 스튜디오 등에서 공연되었으며 커버댄스 교육 영상물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의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는 결국 미국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흐름이었죠. 지금이야 케이팝처럼 한국 특유의 음악과 춤 스타일이 만들어졌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춤 흉내내기 바빴어요. (연구참여자 A)

스트리트댄스를 두루 학습하고 코레오를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케이팝댄스 안무로 들어가면서 지금 케이팝댄스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 지금 현재로서는 코레오와 케이팝댄스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연구참여자 A)

이와 같이 한국의 방송댄스는 미국에서 발생한 스트릿댄스와 얼반댄스를 모방하고 동경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팬덤 문화의 지지를 얻어 대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케이팝댄스로 발전했다. 동시에 한국에서 성장한 전문 스트릿댄서 및 안무가들이 케이팝 산업에 뛰어들고 개인의 특화된 안무를 발표하는 행위로서 안무 분야를 부상시키면서 이제는 역으로 케이팝댄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분야가 되었다. 이를 테면 코레오그래피가 고정된 스타일이나 기술을 갖지 않고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화하는 것처럼, 현재의 케이팝댄스 역시 아티스트의 매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획에 의해 다채로운 형태로 안무되고 있다. 케이팝댄스의 차별된 안무 특성은 아티스트의 남성성,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신체 부각(이자현, 2016, p. 30),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 삽입(강원래, 2020, p. 76), 그룹 멤버의 매력을 선보이는 짧고 강렬한 안무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을 보면 포인트 안무라는데 없어요. 후렴부분마다 난이도를 낮추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따라하기 쉽게 특징적이고 쉬운 안무를 일부러 넣죠. 또 미국은 보이그룹, 걸그룹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멤버들이 한 곡 가지고 춤을 추다보니 한 명 한 명 짧게 댄스를 보여주면서 개인을 돋보이게 전략적으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A)

현재 대다수의 코레오그래피 전공자들이 케이팝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아티스트<sup>2)</sup>를 위한 백업댄서 및 안무가로서의 활약을 꿈꾼다는 점에서 코레오그래피와 케이팝댄스가 지속적으로 연계하며 성장할 것임을 가늠할 수 있다.

졸업하고 가장 좋아했던 일은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뮤직뱅크같은 방송 촬영을 뛰었던 거예요. 지금 저만의 스타일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D)

지금 실용무용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대부분 스트릿댄스 전공자들이고 한국에 스트릿댄스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적부터 굉장히 어렵고 거칠게 현장에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학생들은 코레오그래피 전공을 가장 좋아하고 안무로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분위기죠. 스트릿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 코레오그래피의 원류를 굳이 따지자면 얼반댄스, 방송댄스 쪽인데 그냥 따라하는 방송댄스가 아니라 이것저것 배워서 나만의 것으로 안무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이처럼 국내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는 얼반댄스, 방송댄스, 케이팝댄스와 일부 영역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발전한다. 이들 분야는 모두 스트릿댄스의 춤 스타일과 기술을 추출하여 방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유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 중 코레오그래피는 댄서 개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창의력과 표현이 보다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중문화는 본질적으로 산업의 발달과 동행하며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기에(김현희, 2023, p. 70) 코레오그래피가 거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연계되어 자신만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특성은 동시대 유행을 선도하는 대중춤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더불어

2) 아이돌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매력적인 외모와 키치한 노래 뿐만 아니라 춤 실력, 대중과의 소통 능력, 작곡과 작사 능력 등 다대다능한 가수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을 아티스트라 부르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코레오그래피가 현재 국내 실용무용 교육계 및 현장에서 가장 활발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을 형성하는 현상은 직업적 댄서로서 실리적 측면에 집중하는 젊은 세대의 선택이기도 하다.

### 3. SNS 슷폼 콘텐츠로서의 춤과 내러티브

‘코레오그래피’라는 용어가 스트리트댄스 계열의 전문 안무 영역으로서 대중에 확산된 데는 방송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Street Woman Fighter」의 열풍과 SNS 기반 슷폼 콘텐츠로서의 춤문화 확산 영향이 크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여성 댄서들의 서바이벌 프로젝트로서 2021년 8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26일까지 음악 전문 방송국인 Mnet에서 송출되었다. 최종 우승을 한 크루(Crew)에 총 상금 5000만원을 수여하는 조건으로, 우승을 향한 다채로운 미션과 각 댄서의 독특한 내러티브가 대중의 흥미 요소를 자극하였으며 유튜브 및 각종 SNS로 다양한 콘텐츠와 밈(meme)<sup>3)</sup>이 재생산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방송 이후 직업 안무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이버 및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 정보 서비스에 ‘댄서’라는 직업명이 추가되고 ‘무용인’의 하위로 분류되었던 ‘안무가’가 상위항목으로 조정되었다(김근욱, 2021).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프리스타일 중심의 배틀 미션도 여럿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동반한 코레오그래피가 1명에서 40여명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연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얻었다. 또 서바이벌에 참여한 대부분의 댄서들이 코레오그래피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춤의 스타일을 융합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이름에 ‘스트릿’이 들어간 것이 무색할 정도로 코레오그래피의 대중성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등장한 다양한 코레오그래피는 역동적인 카메라워크와 함께 재현되는 이른바 카메라를 위한 춤(Dance for camera)이며 이는 곧 틱톡, 인스타그램 중심의 SNS에서 사진과 짧은 영상으로 재생산되었다. 춤을 감상하는 주요 환경이 납작한 모바일 화면이므로 그에 최적화된 효과를 위해 많은 댄서들이 붙어서 시간차를 둔 연속적 동작을 선보이거나 정면, 혹은 상방을 향해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 짧은 시간에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 작품의 서사는 한껏 축약되고 모든 동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음악과 합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댄서 개인의 감정, 생각, 태도를 강조하는 춤과 내러티브가 SNS의 슷폼 콘텐츠로서 확산되면서 춤 스타일이 곧 댄서의 정체성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아이키, 모니카, 허니제이 등의 활동명을 가진 댄서들이 새로운 대중 스타로서 인기몰이 하였다.

SNS는 본질적으로 이미지 혹은 짧은 영상 콘텐츠 게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해당 콘텐츠를 하나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썸네일(Thumbnail)과 자막, 사용자들의 댓글 수가 조회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시작되어 SNS의 슷폼 콘텐츠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코레오그래피는 각 춤의 외형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 스타안무가로 발돋움하는 각 댄서들의 내러티브가 제작진 및 대중의 입김에 의해 편집되어 확산된다. 또한 우승을 향한 각종 미션의 과정에서 음악과 안무의 선택, 댄서의 위계 설정, 연출과 훈련 등의 과정 및 댄서들 사이의 경쟁과 협업 관계가 낱알이 방송되면서 기존 코레오그래피 문화의 대중화와 유행화가 이루어졌다.

3) 밈(meme)은 특정 생각이나 지식이 모방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전달되는 문화 요소로서 1976년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1976)』에서 사회적 진화를 묘사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하였다. 현재 대중문화가 또 다른 매체에서 재생산되는 현상을 일컫는데 사용된다.



스우파가 방송되기 전에도 코레오는 있었고 작업하는 과정이나 쉐어하는 문화 같은 것이 다른 장르와 구별됐었죠. 그런데 지금 대학에 입학하고 재학하는 학생들이나 갓 졸업한 댄서들은 아무래도 스우파를 보고 영향받은 세대들이니까 스우파에서 방송을 위해 과장된 면들을 롤모델로 삼는 부분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C)

즉 코레오그래피는 스트리트 느낌의 자유분방함과 독립 댄서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취하며 모방 위주의 방송댄스, 즉흥 위주의 스트리트댄스와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동시에 대중의 선호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안무 작업으로 나아간다. 또 방송 카메라 혹은 모바일 기기로 촬영, 편집한 숏폼 콘텐츠가 코레오그래피 자체이므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본인 계정이 안무를 발표하는 공간이자 댄서로서의 자아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삼십대의 젊은 댄서의 경우 근본적으로 디지털 및 모바일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능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역량과 직업을 개발해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숏폼 콘텐츠로서의 코레오그래피를 제작하고 관련 문화를 공유하는 데 신속하게 행동한다. 동시대의 대중문화는 완벽히 SNS를 중심으로 생산, 향유, 소비되므로 대중성에 민감한 코레오그래피의 활동 공간 및 유형적 특성에 SNS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III. 용어와 영역에 관한 현재적 쟁점

#### 1. 용어의 문제

코레오그래피의 일반적인 어원은 ‘춤을 쓰다’이며 시대별 예술사조 및 서양무용사에 입각한 춤 양식의 변화 흐름에 따라 ‘춤을 가르치거나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억하다’ 또는 ‘춤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참여자들의 안무적 실천’ 등의 의미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미국 하위문화로서의 대중춤에 근거한 스트리트댄스, 그리고 스트리트댄스 계열의 대중춤을 중심으로 국내 무용교육의 새로운 분야로 성장중인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는 그와 차별되는 맥락과 의미를 지닌다.

하나의 용어가 이중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은 혼동의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념의 기반이 약하거나 대중성에 취약한 경우 거대 담론에 의해 본연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 즉 오랜 세월 예술사의 흐름에 따라 코레오그래피의 의미를 사유하며 재정립해온 순수무용의 경우 개념의 기반은 강한 반면, 대중과의 소통성에 취약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해온 코레오그래피 용어의 의미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실용무용이 인식하는 코레오그래피의 경우 그 개념과 문화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독립된 예술문화로서의 학술적 담론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와 대중의 단발적인 선택에 의해 용어가 설정된다면, 전문적인 영역으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연화는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일어나기 전 현장에서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명칭의 혼용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말한다(이연화, 2021, p. 13). 또 정지원은 코레오그래피란 모든 춤 분야에서 춤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사용한 용어이므로 이를 특정 분야만을 위해 고유명사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실용안무(Practical choreography) 또는 자유형안무(Freestyle choreography)와 같이 구체적 명칭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정지원, 2023, p. 6). 물론 예술로서의 무용, 대중문화

로서의 무용 간의 경계는 유동적이기에 코레오그래피의 의미와 범주 역시 향후 변화와 융합의 과정을 겪을 수 있겠으나 용어의 사용은 해당 영역의 활동 특성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담론의 생성이 필요하겠다.

한편 코레오그래피의 용어에 관한 문제는 실용무용 내부에서도 다양한 오해와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 그에 대한 연구와 개념화를 인식하는 시점이다. 현재 코레오그래피의 약어인 코레오가 실용무용 관련 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힙합 코레오’, ‘재즈 코레오’, ‘왁킹 코레오’, ‘걸스 코레오’, ‘힐 코레오’ 등 스트리트댄스의 하위 장르에 코레오를 붙이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또 순수무용의 모던댄스 및 컨템포러리 댄스의 특성을 활용한 경우 ‘컨템 코레오’라 명명하고 케이팝댄스나 스트리트댄스 스타일의 최신 유행을 신속하게 활용한 경우 ‘트렌디 코레오’라 명명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코레오그래피를 스트리트댄스로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용어사용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가 충분히 발표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국어 문법의 특성상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일 경우, 뒤에 오는 단어가 본질적인 의미를 지시하고 앞에 붙는 단어가 그를 형용한다. 따라서 현재 실용무용 분야에서 사용하는 ‘xx 코레오’의 경우 앞에 붙는 스트리트댄스 장르 명칭은 코레오를 꾸며주는 역할이며 해당 단어의 본질은 안무되었다는 의미의 코레오그래피를 명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컨템포러리 발레, 한국창작춤과 같이 순수무용 계열의 장르를 지시하는 용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 과거 ‘스포츠댄스’라 일컬었던 춤 장르를 체육 분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댄스스포츠’로 변경하여 부르게 된 과정에서도 뒤에 오는 단어가 본질을 지시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코레오그래피로 명명되는 춤들은 공통의 스타일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유형이 다채로우며 반복하지 않는 창의성이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유사한 흐름의 장르적 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즉 코레오그래피는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유사한 춤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적 집단이자 문화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에 가깝다.

코레오는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스타일이 강해지면 장르가 되니까요. 코레오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일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공연하려고 모여서 안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코레오 분야에서 특이하게 쉐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강조하거든요. 그런게 코레오의 문화적 특징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보통 코레오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일방적으로 완전 스승이 제자를 대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서 알게된 것들을 말해주고 또 저도 그들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부분이 강해요. (연구참여자 B)

즉 코레오그래피는 특정 장르나 고정된 춤 스타일로서 존재하기를 거부하며 일방적인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보다는 춤과 경험을 공유하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문화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이는 무용 예술에서 컨템포러리 댄스가 갖는 해체적 특성과 맞는 부분이며 춤 스타일이나 관련 정신을 지시하지 않는 다소 흐릿한 용어로 설정된 이유와도 맞닿는다.

## 2. 영역의 문제

실용무용 코레오그래피를 둘러싼 영역의 문제는 스트릿댄스와 코레오그래피의 관계, 그리고 컨템포러리 댄스와 코레오그래피의 관계의 두가지 차원으로 논의할 수 있다.

현재 실용무용 및 스트릿댄스는 급격한 제도화를 겪고 있으며 관련 요인으로 대학, 대학원, 학점은 행정 기관에서 무용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방송매체를 통한 스트릿댄스 및 코레오그래피의 인기 상승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개인의 건강과 신체적 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실용무용 관련 산업이 발전하였고, 대학 내 실용무용 관련 교양교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다(박영하, 2015, p. 42). 이윽고 2003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및 2004년 백제예술대학을 기점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실용무용 관련 전공이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전공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차윤미, 2015, p. 36). 또한 기존의 무용과, 융합예술과, 실용음악과 등의 전공분야에서도 입학생 유치 및 영역의 확장을 위해 대중춤으로서의 스트릿댄스 및 코레오그래피 영역에 관심을 표하는 실정이다. 2012년 이후 스트릿댄스 전공자들의 박사학위 취득 사례가 증가하고 이들이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로 임용되면서 실용무용계에 속한 당사자들의 자체적인 학문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스트릿댄스의 춤 스타일을 적극 활용하며 대중춤 문화의 중심에 선 코레오그래피의 영역에 관한 문제가 부상한 것이다.

스트릿댄스에서 코레오그래피의 배제와 수용 문제는 스트릿댄스의 범주 및 역사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다. 즉 스트릿댄스의 정체성을 비정형 공간으로서의 ‘스트릿’에 두거나, 프리스타일 중심의 춤 스타일 및 형식에 둔다면 코레오그래피는 스트릿댄스에 속하지 못한다. 반면 댄서의 자아 정체성 인식, 혹은 주변 댄서와의 교류 및 문화적 인정의 측면에 기준을 둔다면 코레오그래피가 스트릿댄스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레오그래피는 태생적으로 얼반댄스, 방송댄스, 케이팝댄스와 일부 영역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스트릿댄스에서 코레오그래피의 수용 문제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서의 케이팝댄스 수용 문제로 연결되는 복잡성을 지닌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브레이킹을 채택하면서 현재 스트릿댄스는 체육과 무용의 중간 지점에서 상황에 따라 두 영역을 교차하며 존재한다. 그런데 스트릿댄스의 브레이킹이 배틀에서의 득점을 통한 스포츠적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반면, 코레오그래피는 창작성과 표현성이 극대화된 퍼포먼스 유형의 대중춤이므로 체육 영역에 속하기에 난점이 있다. 이에 스트릿댄스와 코레오그래피의 관계는 다시 체육과 무용의 관계로 연결되는 문제에 돌입하며 다채로운 쟁점을 생산하게 된다. 이처럼 코레오그래피의 영역 문제는 무용과 체육, 순수무용과 실용무용의 경계 위에서 실용무용이 제도적 입지를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용예술로서의 컨템포러리댄스와 스트릿댄스 계열 코레오그래피의 관계는 역사적, 개념적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갖는다. 국내 무용계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중심으로 예술활동과 담론을 축적해왔으며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의 측면에서 일부 대중춤 역시 수용해왔다. 그러나 배틀 중심의 스트릿댄스는 여전히 차별되는 영역으로서 완전히 수용되지 않고, 공연을 위한 융합과 협업의 과정으로서 타자의 관점에서 접근되었을 뿐이다. 코레오그래피가 다양한 춤 스타일을 활용하며 경계를 해체하는 안무 작업을 시도하고 예술성을 탐구해나가는 현 시점에서, 컨템포러리 댄스 역시 구성원간의 협업과 소통, 무질서, 무맥락을 강조하는 해체 정신으로 코레오그래피와 만날 수 있다.

특히 무용수와 댄서의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교육산업에서 실용무용과 순수무용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예술성과 대중성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코레오그래피 전공 희망자가 학원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학원 건물 양쪽 홀에서 실용무용과 순수무용 수업을 하고 있고 순수무용의 경우에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다 가르치는데 현대무용이 가장 많아요. 실용무용 계열은 코레오가 제일 인기고요. 또 학원에 순수무용과 실용무용 강사가 같이 있으니까 학생 한 명을 쿡쿨에 내보낼때에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B)**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분야의 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이색적인 공연을 제작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양한 색채의 무용수들을 한 데 초청하여 춤 장르를 결합하는 것에 집중했던 크로스오버(crossover)공연과 차별되는 양상이다. 즉 실용무용 관련 전공자가 무용예술계로 활동 범주를 이동하여 체화된 융합의 작업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양 측의 전공자들이 모여 오랜 기간 질문과 실천에 기반한 협업의 과정을 통해 안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또 매체를 통한 스트릿댄스 및 코레오그래피 콘텐츠의 확산 흐름으로부터 영향받은 무용가들이 샷폼 댄스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거나, 반대로 미디어 중심으로 활동했던 코레오그래피 댄서들이 주제의 심연으로 깊이 파고드는 형태의 안무 경향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이들 모두 춤추는 사람의 자전적 기록으로서 춤이 발생하는 지점에 관심을 두고 어딘가에 규정되지 않는 탈경계움직임을 선보이려 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는 컨템포러리 댄스의 특성인 동시에 코레오그래피의 특성이므로 두 분야의 융합 지점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또 대중춤의 새로운 분야로서 부상한 코레오그래피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 중심의 순수무용 교육과 분리되어 실용무용의 이름으로 확장된다는 점이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며, 코레오그래피의 특성으로부터 영향받아 독특한 안무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국내 컨템포러리 댄스 역시 한국만의 특질을 취한다는 점은 향후 글로벌 컨템포러리 댄스로서 두 영역의 예술을 함께 논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동시대 무용의 변화 양상을 관찰할 때, 실용무용으로서의 코레오그래피가 대중문화는 물론 무용예술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관련 문헌 및 미디어 콘텐츠를 탐색하고 현장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코레오그래피의 개념과 특성,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실용무용에서 인식하는 코레오그래피의 개념은 프리스타일 힙합과 대비되는 계획된 안무, 케이팝 산업과 연계되는 방송용 안무, SNS 샷폼 콘텐츠로서의 춤과 내러티브로 정리되었다. 또한 무용예술에서 시대별 예술사조에 입각하여 사용해온 코레오그래피의 개념이 실용무용에서 이질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 동시에 안무를 대하는 태도와 정체성 면에서는 동시대 무용예술의 코레오그래피와 중첩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스트릿댄스와 코레오그래피, 그리고 컨템포러리 댄스와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 간의 경계가 흐려

지는 현상은 실용무용 교육의 제도화 및 미디어와 연계되는 대중춤 문화의 폭발적 확산 흐름과 함께 새로운 용어와 영역의 등장으로 연결된다. 다원성에 입각하여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기에 이른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볼 때, 실용무용 내부에서 이뤄지는 각 영역의 재개념화 움직임은 시의(時宜)에 맞지 않는 행위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용무용 및 스트리트댄스에 대한 학술담론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념과 역사 정립에 대한 노력은 무용 관련 학술 담론의 다양한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무용의 코레오그래피 개념을 상세히 밝히고 용어와 영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적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대중문화의 꽃으로 부상한 코레오그래피의 관계적 위치를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양한 장르의 춤 스타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안무로 발전시키는 코레오그래피가, 실용무용의 교육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동시에 무용예술의 컨템포러리 댄스 또한 전 세계 무용예술의 흐름을 따르되 지역적인 한국의 특성을 활용하여 유일무이한 한국형 컨템포러리 댄스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 실용무용 코레오그래피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학술적 담론을 생산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가 무용 관련 공연, 교육, 문화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탈경계 현상과 함께 무용가 개인의 스타일 발견 및 자아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돋움하는 코레오그래피의 입체적 양태를 탐색하고 논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 Lepecki, A.(2014). *코레오그래피란 무엇인가* (문지운 역). 현실문화 (원저출판 2006).
- Anderson, C. S.(2020). *Soule in seoul -African American popular music and K-pop*.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 Foster, S. L.(2009). *Worlding dance*. Palgrave Macmillan.
- 강원래(2020). **포인트 안무와 케이팝 댄스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김찬주(2003). 세계 패션선도 도시들의 남성 스트리트 패션 연구-유형분류와 스타일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3), 298-309.
- 김현희(2023). 실용무용으로서 대중춤의 흐름과 의미. *무용예술학연구*, 91(2), 67-83.
- 두원원, 김미현(2020).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의 관점에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연구. *조형미디어학회지*, 23(4), 134-143.
- 박영하(2015). 실용무용의 흐름과 경향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52(1), 35-52.
- 이아로미(2018). **일반 댄스의 개념과 장르 형성 기준 논의**.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 이연화(2021).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 전공의 개념 정립을 통한 뉴 패러다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 이자현(2016). 케이팝(K-Pop) 걸그룹 댄스의 움직임 특성과 움직임 코드 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12(4), 77-114.
- 정지원(2023). 시대에 따른 스트리트댄스의 개념과 범주 변화. *한국실용무용학회지* 1(2), 32-42.
- 차윤미(2015). **스트리트댄스의 전문인양성 교육의 활성화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 최용원, 유화정(2023). 국내 스트리트댄스 교육의 변화 흐름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22(4), 79-91.
- 김근욱(2021.12.16.) “스우파’ 효과... 포털 인물정보에 댄서 추가된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524794>, 2023. 11. 02.>.
- 윤지현(2023.03.31.) “[춤을 쓰다-8]코레오그래피, 그리고 안무의 확장”. *더프리뷰*. <<http://www.thep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7>, 2023. 11. 10.>.
- 김현문, 안창용, 이우재, 차윤미, 박소현(2023). **실용무용의 이해와 실기**. 충청남도교육청.

논문투고일 2023. 11. 29.  
심사일 2023. 12. 06.  
심사완료일 2023. 12. 15.

## Exploring the Concept and Current Issues of Choreography in Practical Dance

**Yoo, Hwa-jung**

Professor, Center for Future Education, Sejo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choreography in practical dance affects popular culture and dance art world. Accordingly,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related issues of choreography were discussed by exploring related literature and media content and interviewing exper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cept of choreography in practical dance was organized into planned movements in contrast to freestyle hip-hop, broadcast choreography linked to the K-pop industry, and dance and narrative as short form content. In addit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concept of choreography in practical dance overlaps with the concept of choreography in contemporary dance in terms of attitude and identity toward choreography.

Final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iscussed the three-dimensional aspects of choreography, which develop into the discovery of dancer's personal style and self-identity, along with the accelerating demarcation phenomenon of the dance world.

**Keywords:** Popular dance(대중춤), Practical dance(실용무용), Choreography(안무), Contemporary dance(컨템포러리 댄스), K-pop dance(케이팝댄스)